



Analyst 정규진 · 02-3773-9995 · cuejin.jung@s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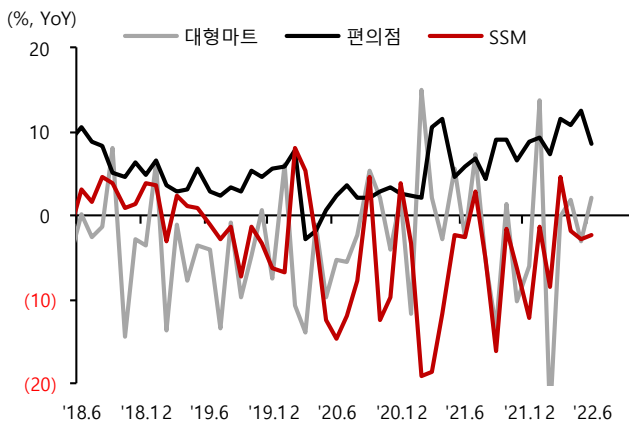
# Issue Comment

- ✓ 최근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수익성 개선 위해 새벽배송 축소 중
- ✓ 배송기사 확보 어려움, 낮은 구매단가로 쿠팡커머스 사업 역시 적자 지속
- ✓ 고금리 및 리오프닝 국면에서 새벽배송 및 쿠팡커머스 사업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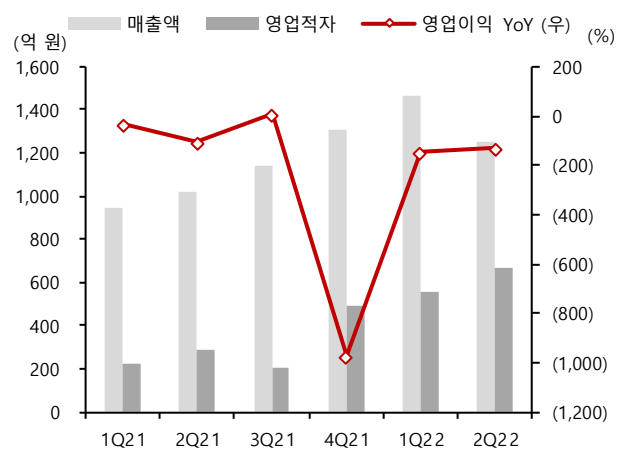
## 이커머스 3.0 흐름 속 새벽배송과 쿠팡커머스

- 최근 몇 년간 유통업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처가 이동하는 구조적인 산업환경 변화에 직면, 이커머스 진출에 속도
- 미국발 금리 인상 국면 속 자금조달 한계 봉착. 이에 대해 적자 사업부를 축소하는 등 수익성 개선하려는 이커머스 3.0 흐름 목적
- 올해 4월 롯데쇼핑(롯데온), 5월 BGF 리테일(헬로네이처), 7월 프레스지와 GS 리테일(GS 프레시몰)은 새벽배송 서비스 중단
- 새벽배송 시장은 콜드체인 등 설비 구축에 상당한 금액 소요되며 선점 업체 많아 주문량 확보 어려워 흑자 전환 어려운 상황
- 주문 후 15분~3시간 내 배송하는 쿠팡커머스는 선별적 접근. 기존 오프라인 점포 활용 시 추가 비용 없지만 구매단가 낮다는 선천적 한계
-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물 물량 감소에 대해 69개점 718대에서 66개점 547대 차량으로 점포 및 배차, 인력 축소하며 쿠팡커머스 축소
- 기업형수퍼마켓(SSM) 역시 대형마트에 비해 뚜렷한 강점 없어 최근 부진한 실적 기록 중. 쿠팡커머스 서비스 접목해 매출 개선 도모 중이나 편의점과 달리 점포 규모 기준으로 영업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편의점과의 경쟁에서도 열위
- GS 리테일은 GS25-GS수퍼마켓 배달 주문 앱 출시, 요기요 인수, 요마트 출시 등 쿠팡커머스 역량 강화 중이나 적자 폭 지속적 확대
- 배송기사 확보 어려움, 비용 대비 낮은 구매단가, 리오프닝 국면 속 비대면 수요 감소로 새벽배송과 쿠팡커머스 플레이어들의 사업 축소 기초 뚜렷할 것

국내 유통 업체별 전년동월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 추이



GS 리테일 이커머스 사업 (공동 및 기타 부문) 실적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SK 증권

자료 : GS 리테일,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